

성철사상연구원 논문심사 규정

1) 논문 심사 절차

- (1)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 『퇴옹학보』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편집위원회는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 및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·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.
- (3) 심사위원 3인은 심사결과를 ‘게재, 수정 후 게재, 수정 후 재심사, 게재 불가’의 4 등급으로 판정한다.
- (4) ‘게재’는 특별한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, ‘수정 후 게재’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하나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, ‘수정 후 재심사’는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, ‘게재불가’는 표절이나 기타 본 학술지의 발간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게재하기에 부실한 경우에 해당한다.
- (5) 심사 결과 ‘수정 후 게재’가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, 수정본을 확인하여 게재한다.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때에 수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재심사 한다.
- (6) 심사 결과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.
- (7) 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의 판정에 따른다.
- (8)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2) 심사 기준

- (1) 게재 논문은 성철사상연구원에서 제정한 『퇴옹학보』 논문 게재 원칙 및 집필요령에 맞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.
- (2)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제가 명확하며,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.
- (3)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, 개념, 논거,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.
- (4)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(5) 특히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, 게재 논문이 그들 논문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.

3) 논문 게재 원칙

- (1) 성철사상연구원에서 개최한 연찬회에서 발표한 학자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논문의 내용은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, 선학 등 불교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서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와 불교학 발전에 기여할 논문으로 한다.
- (3) 논문의 채택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- (4)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4) 정기간행물의 발행일

본연구원은 학술지를 매년 2회 발행한다. 전반기 6월 30일, 후반기 12월31일로 한다.